전남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병상수 태부족

1000명당 병상수 0.7개로 전국 최저…서울과 53배 차이

전공의·간호사 충원 등 광주·전남 의료 인프라 확충해야

전남지역 신생아중환자실 근무 인력과 병상수 등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이화여대 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신생아 관련 의료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1000명 당 필요한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는 3.9개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해 지난해 11월 제출한 것으로, 필요 신생아 병상수 3.9개는 2015년 태어난 43만8420명 중 미숙아 비율이 3.93%(3만424명)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2015년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은 1716개로, 필요 병상수는 채웠지만 25% 이상 확보해야 하는 예비 병상(500여개)은 추가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특정 지역에 병상 수와 인력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1000명당 신생아 병상수는 0.7개 수준으로 전국 평균(3.9개)을 크게 밑돌았으며 16개 시·도 중 경북과 함께 최하위를 차지했다.

같은해 광주는 병상 68개를 갖추고 있어 1000명당 5.5개 꼴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16개 시·도 중 광주는 서울(7.1개), 대전(6.4개), 대구(5.6개)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실제 신생아 병상수로 비교했을 땐 서울이 전남보다 53.6배, 광주보다 8.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 의료인프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컸다.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공의가 전무했다. 2015년 기준 광주지역 병상당 전공의 수는 0.15명이다. 전문의는 광주 0.09명, 전남 0.27명 수준이었다. 전문의만 따져봤을 때 광주는 의사 1명이 11개 병상을, 전남은 3.7개를 돌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에서는 2011년에 비해 2015년 병상수는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병상당 0.87명, 전남 1.18명으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신생아 전문치료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병원 인공호흡기는 병상당 0.56개로 경북(0.44개)에 이어 하위권이었다. 전남은 1.36개로 비교적 양호했다.

인큐베이터 수는 광주에서는 병상당 0.94개, 전남은 0.82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전국 평균(0.95개)에는 못 미쳤다. 또한 이송용 인큐베이터는 광주 0.1개, 전남 0.27개였다.

연구팀은 "전남도, 경상도 지역은 여전히 필요병상 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남지역은 전공의가 없어 전문의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주는 병상당 간호사 수가 1 : 1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평균 입원일, 병상 가동률 등을 이용해 현재 출산 현황에 맞는 정확한 필요 병상과 예비병상 수를 산출해 지역별 병상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생아집중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노동집약적 업무인 만큼 숙련된 의사, 간호사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 밤새 새차 타이어 모두 사라졌네"

"교체 비용 부담돼 훔쳐"…40대 얌체도둑 검거

집 앞에 주차해 둔 새 차의 타이어가 하룻밤 새 모두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전북 군산에 사는 하모(44)씨는 지난 10월 큰마음을 먹고 새 차를 샀다. 지난 11일 회사일을 마친 하씨는 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싶었지만, 하필 이날은 눈이 많이 내려 아파트 주차장 진입이 어려웠다.

이튿날 하씨는 날카로운 휴대전화 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당신 차를 봤는데 바퀴가 다 빠져 있다.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하씨와 아내는 집에서 뛰쳐나와 부리나케 애마로 향했다. 주민이 말한 대로 타이어가 모두 빠진 그의 차는 벽돌 몇 개에 의지한 채 허공에 떠 있었다.

하씨는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전날 내린 눈이 앞유리에 쌓여 흰 화면만 계속 재생됐다. 경찰은 하씨 신고로 수사에 나서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끝에 타이어를 훔친 양모(40)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타이어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마침 새 차에 같은 사이즈 바퀴가 끼워져 있었다"며 "타이어 교체비용이 부담돼서 그랬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은 절도 혐의로 양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이대목동병원 압수수색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만인 19일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 병원 11층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산실 등을 수색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와 석션, 약물 투입기, 각종 링거·주사제 투약 호스 등 의료기구와 전산실의 의무기록, 처방기록 등이 압수 대상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감염원의 매개체가 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모든 의료기구를 압수 중인 경찰은 이들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건당국 조사 결과 사망 신생아 4명 중 3명이 그람음성균에 감염된 점이 확인된 만큼, 치료 과정에서의 감염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건소 직원들, 신생아실 점검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19일 한 병원 신생아실을 점검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최근 서울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신생아 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간첩 조작사건 재심 위증 전 보안사 수사관 기소

2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윤정헌씨의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보안사 수사관 고모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6년 만인 2011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고씨를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5년여 만에 고씨를 기소했다. /연합뉴스

주민 목격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암매장 조사

5·18재단, 서구에 협조공문

빠르면 이번주 발굴 나서

5·18기념재단이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에서 5·18행불자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19일 5·18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전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암매장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 광주시, 서구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서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발굴할 장소는 현재 광주 제1하수처리장이 자리한 광주천변 맞은편으로, 5·18 당시 옛 상무대에 상주했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와 가까운 곳이다.

이곳은 주민 김영환씨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암매장을 목격했다<광주일보 2017년 1월23일자 6면>고 제보한 장소다. 지난 4일 진행된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색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도 했다.

김씨의 목격담에 따르면 1980년 5월24일 비 오는 새벽 2~4시 전조등을 켜지 않은 군용트럭(1t 크기 추정)들이 현 극락교 아랫길로 들어갔다. 다리 아래에서는 군용 포크레인이 모래밭을 파고 있었고 뭔가를 집어던지는 듯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김씨는 당시 '5·18 희생자들을 파묻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김씨는 "며칠 뒤 현장에 다시 가보니 모래땅은 빗자루로 쓸어 평평하게 정리돼 있었고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땅이 물러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단은 서구에서 발굴 승인이 떨어지면 날씨 등을 감안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굴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곳에서도 암매장 흔적을 찾지 못할 경우 재단은 옛 광주교도소를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지난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교도소 암매장 약도를 작성해 제출한 3공수여단 본대대장 김모 소령 등에게 연락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질환 확인 않고 조영제 투여 쇼크사 유발 의사

법원 "8000만~1억4000만원 배상하라"

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뒤 응급조치까지 늦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A(42)씨의 유가족 3명이 광주 모 병원 내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유가족에게 각각 8000만~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편두통 증상으로 B씨의 병원을 찾았다. B씨는 뇌 CT(컴퓨터단층) 촬영을 위해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5분 만에 촬영을 마쳤다 .

촬영 후 A씨는 가려움, 콧물 흘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처방했으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영제를 처방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과거력이 있는 고위험 환자군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예방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진료기록부에 고인에게 이러한 질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의료진이 조영제를 처방하면서 과거력, 질환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응급조치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조영제 투여 후 최소 30분 이상 환자를 관찰하고 소생술을 위한 약물과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면서 "고인이 CT 촬영 후 기침 등 증상을 보였는데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진료실에 머물면서 주사제 투약만 지시했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보면 응급조치를 지체한 과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남친 트렁크에 태워 국가보안시설 몰래 드나든 '간큰 여직원'

쌍나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보안시설에 근무하는 계약직 사무 여직원이 남자 친구를 차량의 트렁크에 태워 몰래 드나든 사실이 들통.

○…19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0월 5일께 남자친구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타도록 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정문을 통과해 기숙사로 함께 들어갔다는 것.

○…A씨의 규정위반 사실은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국방과학연구소가 확인에 나서면서 드러났는데,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시험장 출입시 차량의 트렁크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출입 통제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 후속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4575	1	북구 운암동 1078-14 운암산코아루렉시안 101동 1층 102호 84.9961㎡	아파트	250,000,000 250,000,000	
	2	동소 1078-14 운암산코아루렉시안 102동 1층 101호 84.9961㎡	아파트	250,000,000 250,000,000	
	3	동소 1078-14 운암산코아루렉시안 102동 1층 102호 84.9961㎡	아파트	250,000,000 250,000,000	
2017타경 8393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08동 7층 702호 49.96㎡	아파트	67,000,000 67,000,000	임대관계미상
2017타경 11252	1	서구 치평동 1166-2 금호대우아파트 111동 8층 804호 59.94㎡	아파트	180,000,000 180,000,000	
2017타경 11764	1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85-8, 101동 16층 1601호 [국제아파트] 84.57㎡	아파트	116,000,000 11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11597	1	남구 대지동 393-4 549㎡[수목매각포함] 남구 맹간제길 2-9 51.04㎡ 부속건물 퇴비사 15.34㎡[현황보일러실및다용도실,건축물대장상등재된면적과실측면적차이] 부속2 3.08㎡[현황주택및창고] 제시외 창고 등 14.04㎡	대 단독주택	110,964,120 110,964,1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제시외건물은실측면적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10709	1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600 1349㎡	답	39,660,600 39,660,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64157	1	장성군 북일면 성산리 708 929㎡[현황일부도로및묵전]	답	16,722,000 16,72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자동차,중기]					
2017타경 11344	1	사용본거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1 [상수동] 등록번호:92거8904 차명: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연식:2014	자동차	13,000,000 13,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여대길222-1
2017타경 64362	1	사용본거지:무안군 청계면 화설당길 54-17 등록번호:71라3669 차명: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연식:2014	자동차	11,000,000 11,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번지현대주차장내
2017타경 66009	1	사용본거지:광산구 월곡동 월곡산정로108,108동 408호[월곡동,한성아파트] 등록번호:11로3470 차명:투싼 연식:2016	자동차	22,000,000 22,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3 송암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1. 3.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1. 10.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모창환